

맨유, 연장 PK골로 코펜하겐에 1-0승리...유로파 4강행

연장 5분에 터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결승골'

인터밀란도 4강 합류...루카쿠 유로파리그 9경기 연속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연장 접전 끝에 코펜하겐(덴마크)을 꺾고 유로파리그 4강에 합류했다.

맨유는 11일(한국시간) 독일 쾰른의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코펜하겐과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전후반 90분 득점 없이 비긴 뒤 연장 전반 5분에 터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맨유는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3시즌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해 전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단된 유로파리그는 이달 초 재개됐

다. 8강전부터 독일에서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돼 우승팀을 가린다. 맨유는 코펜하겐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과 골대 불운으로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21분에는 앙토니 마시알이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취소됐다.

전반 45분에는 메이슨 그린우드 가 골망을 갈랐지만 역시 VAR을 거쳐 오프사이드가 지적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후반에도 골은 따르지 않았다.

후반 18분에는 페르난데스의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후반 23분 페르난데스 후반 39분 마시알의 슈

팅은 코펜하겐 갈 요한 운손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혔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팽팽한 균형은 연장 전반 5분에 깨졌다.

교체로 들어온 후안 마타에서 시작된 패스를 마시알이 잡는 과정에서 안드레아스 비엘란드에게 밀려 넘어져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맨유는 키커로 나선 페르난데스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뒤셀도르프에서 치러진 또 다른 8강전에선 인터밀란(이탈리아)이 바이어 레버쿠젠(독일)을 2-1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

인터밀란은 전반 15분 니콜로 바렐라와 21분 로멜로 루카쿠의 연속골로 카이 하베르츠가 한 골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유로파리그 4강에 합류했다.

만회하는 데 그친 레버쿠젠을 이겼다.

벨기에 출신 골잡이 루카쿠는 이날 득점으로 유로파리그 9경기

연속골을 기록, 연속 경기골 신기록을 세웠다.

손혁 '긱은일 마다않는' 김혜성·김태훈·박준태 칭찬

손혁 감독 "김혜성, 어려운 시즌에도 좋은 모습"



김혜성

"보이지 않아도 팀에 소중한 선수가 있죠."

손혁 감독 히어로즈 감독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였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이들 덕분에 팀도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일 올스타 베스트 12 후보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키움도 각 포지션별로 12명의 후보를 냈다.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인 외야수 이정후와 박병호, 에이스 에릭 요키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손 감독은 2루수 후보 김혜성을 주목했다.

김혜성은 올 시즌(10일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실 내야에서 외야로 가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선수도 있다. 하지만 김혜성은 외야 수비를 처음 제안했을 때 '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경기에 나갈 수 있다면 좋다'고 하더라.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김혜성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올스타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해준 선수들도 있다.

투수 쪽에서는 김태훈을 언급했다.

손 감독은 "투수 쪽에서는 요키시나 (마무리 투수) 조상우도 잘해줬다. 하지만 김태훈은 기록이 많이 남지 않는 자리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박수를 보냈다.

김태훈은 주로 구원으로 등판하고 있다.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졌을 때는 긴 이닝을 소화하며 선발과 불펜을 잇는 역할도 한다.

지난 6일 허리 부상으로 1군에서 말소되기 전까지 32경기에서 43%이닝을 던지며 5승무패 8홀드 평균자책점 3.30을 올렸다.

9번 타자 박준태도 올해 키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타율 0.242를 기록 중인 박준태는 0.397의 높은 출루율을 자랑하고 있다.

9번 타자 박준태가 잘살아나가면서 상위 타순과의 연결도 매끄럽다.

지난 8일 LG 트윈스전에서는 날카로운 홈 보살을 선보이는 등 수비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손 감독은 "박준태는 숨은 기록이 좋다. 최근에 출루율이 부각돼 다행"이라며 "LG전에서도 박준태의 수비가 아니었다면 어려운 경기가 됐을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주축 선수뿐 아니라 숨은 영웅까지 제 역할을 해내면서 키움은 '정상'을 향한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손 감독은 "보이지 않지만, 팀에 소중한 선수가 있다"면서 긱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뉴스

강진군, 2020 K6 전라남도(A.B) League 열려

강진군 종합운동장서 목포EVRO·영광철산 개막전으로 시작



축구 동호인들의 축제라 불리는 K6 전남권역리그가 지난 9일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목포EVRO와 영광철산 개막전으로 시작했다.

축구 동호인들의 축제라 불리는 K6 전남권역리그가 지난 9일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목포EVRO와 영광철산 개막전으로 시작했다.

K6리그는 한국형 디비전 시스템의 아마추어 성인 리그이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리그이다.

대한축구협회 주최하고 전남축구협회,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축구협회에서 주관해 열린 대회 개막

식은 코로나19 상황 속 진행돼 철저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및 소독 등 방역 및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K6리그를 통한 강진의 우수한 스포츠 시설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강진에서 1주일 살아보기, 강진만 생태공원, 가우도 등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당일 체온측정, 방명록 및 방역 대상 작성 등 남은 기간 동안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방역 활동 가운데 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정광중·고, ' 시도학생역도대회' 메달 수확 쾌거

총 금7·은4·동2 획득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에서 광주 정광중과 정광고가 메달을 휩쓸었다.

먼저 정광중 3학년 박영훈 학생이 지난 8일 남중부 102kg급에 출전해 인상 90kg, 용상 110kg, 합계 200kg으로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거머쥐며 금메달 3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또 3학년 이현영 학생은 지난 8일 여중부 55kg급에 출전해 인상 2위, 용상 3위,

합계 3위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역대 명문 정광중의 명성을 드높였다.

정광중 3학년 박영훈 학생은 "정당한 감독 선생님과 김상현 코치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이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기량을 끌어올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정광고 3학년 김연호 학생은 지난 6일 여고부 55kg급 경기에서 인상 72kg, 용상 93kg, 합계 165kg으로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거머쥐며 금메달 2관왕

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7월 열린 제31회 전국중·고·고·대학생역도경기에서는 인상 1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 3관왕을 차지했다. 정광고 2학년 나민주 학생도 지난 7일 남고부 67kg급에서 인상 120kg, 용상 152kg, 합계 272kg으로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거머쥐며 금메달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3학년 김경민 학생은 지난 9일 남고부 89kg급에서 인상 139kg을 들어 올려 은메달 1개를 차지하며 역대 명문 정광고의 명성을 드높였다.

김민정 기자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금1·동2 획득

여중부 종합 준우승

광주체육중 태권도부가 지난 7월30일~8월9일 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여중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고 태백시, 태백시태권도협회가 공동으

로 주관했으며,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 공식행사의 취소 및 연기됨에 따라 올해 처음 개최된 태권도대회이다.

여중부 라이트급 1위 3학년 김가현 학생은 32강부터 준결승까지 점수차 승(20점차)을 거뒀고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골든포인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가현 학생은 월등한 경기력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하면서 이 체급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여중부 페더급 3위 2학년 김지희 학생은 8강 경기에서 3학년 상대를 승리했지만 준결승 경기에서 15:11로 이집게 패배하면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중부 웰터급 3위 2학년 나정후 학생도 준결승 경기에서 3학년 상대를 2회전까지 선전했지만 20:10으로 패배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는 이번 대회에서 금1, 동2개를 획득하면서 올해 처음 열린 대회에서 여중부 종합준우승과 최우수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서선욱 기자